



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유권자들이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설치된 연동제8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유권자 표심은 '정권 심판' 현 정권 향후 가시밭길 예상

■ 총선 결과 의미와 과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출하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띠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였지만 유권자의 표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다.

윤 정부는 지난 2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홍범도 장관 홍상 이전 추진으로 불거진 역사관 논란,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이어지며 민심은 흔들렸던 전 법무부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총선에 대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으로 원내 1당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윤 정부는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러 국정 난맥상이 여당의 선거 참패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라고 평가받는 제주 표심도 간과하면서 제주에서 민주당 6연승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제주를 찾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제주4·3을 왜곡한 태영호 후보와 조수연 후보에 대한 공

천을 감행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윤 정부와 여당에 큰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총선에 긴급 투입돼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선거를 이끈 한 위원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의힘 당내 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제1당이 됨으로써 제주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총선 공약과 민주당의 제주 공약 이행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도민 항공로 지원, 물류지원 강화, 제주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내걸었다.

한편 10일 밤 12시 기준 제주출신 총선 후보들 가운데 인천 계양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용인병에 민주당 부승찬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후보로 낸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례 순위 9번 제주출신 정춘생 후보는 당선권 안착이 예상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투표율 62.2%... 전국 꼴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투표율이 62.2%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4년 전 총선 제주 투표율(62.9%)보다 0.7%포인트 낮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제주지역 선거인은 56만 6611명으로 이 중 35만 254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선거인의 62.2%가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이는 이날 진행된 본투표와 지난 5·6일 사전투표 등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선 선거인 41만 290명 중 25만 1409명이 투표하며 61.3%의 투표율을 보였다. 서귀포시에선 유권자 15만 6321명 중 10만 1132명이 투표에 참여해 64.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제주시보다 3.4%p 높은 수치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도내 3개 선거구 중에 가장 경합지역으로 꼽혔던 만큼 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4·10 총선과 제주 현안 (1)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여부 새 국면... 당선인 행보 주목

본보 등 최근 여론조사 반대 47%·찬성 45%로 팽팽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주민투표법 개정 찬성 입장도 “국책사업,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부칠 수 없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제주지역 4·10 총선에서도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으로, 앞으로 주민투표 여부와 총선 당선자들의 관례법 개정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이 공동으로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도 도민 갈등 국면을 방증한다.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이뤄졌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중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는 물음에 반대(47%)가 찬성(45%)보다 앞섰지만 격차는 2%포인트(p)에 불과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8%였다. 선거구별로는 제2공항 입지가 위치한 서귀포시(찬성 53%, 반대 39%)와 인근 지역인 제주시(찬성 47%, 반대 45%) 유권자들은 찬성(56%)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성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적용됐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유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을 선거

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유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찬성, 그리고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내비쳤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으로 제2공항 문제가 표심 잡기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줬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 관련 의견을 담은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후보자 7명중 4명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민 80%가 제2공항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이유를 말씀해 달라', '주민투표법 제8조 1항 개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를 말씀해 달라', '주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개정 방향 및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등 3가지를 질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주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반대 입장였고,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제주도 입장은 다르다. 도는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며 “제도권 내에서 국토부가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공개하며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귀기기자 haru@ihalla.com

밀성(밀양)박씨 은산부원군과 제주도종친회 모제봉행 안내

만물이 생동하는 갑진년 새봄을 맞이하여 종친 제위의 건승과 종친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입도조 모제봉행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시 2024년 4월 14일(일요일)

- 10:00: 선조세장지 모제봉행
장소: 배한이묘역 ~ 애월읍 광령리 3597
- 11:30: 입도조묘역 모제봉행
장소: 정지원-애월읍 어머리 1744
- 12:00: 음복 및 종친간 친교의 시간(정지원 현장)
※ 모제에 참석하신 종친님께는 거마비를 드립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회 장 박승석 010-9898-8883
총무이사 박영훈 010-9458-4420
재무이사 박지홍 010-5138-0199

밀성(밀양)박씨 은산부원군과 제주도종친회
종친회장 박승석
청년회장 박승국

사 과 문

품종보호권(특허권)을 침해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귀포 소재 모 종묘회사 대표인 본인은 만감류 품종의 하나인 씨니트 모품 품종보호권자(현성익)와 전용실시권자(한라종묘)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산적, 물질적 침해를 입힌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보호권자 **현성익**, 전용실시권자 **한라종묘** 양

‘씨니트’모품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모품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모품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수 나눔(고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모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모품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시정 조치 현황** · 농가 : 17 농가 · 업체 : 1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 락 처 : 010-3696-2057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중-3524호

동 구 치 과 의 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2층 동구치과의원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시공 / 징크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